

# LG화학, 여수공장 다문화여성 지원

## 1000만원 새해 선물과 국제운송비 후원 ... 2011년부터 애로사항 해결

LG화학은 여수단지에서 근무하는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.



행사는 안산 기숙사식당에서 베트남·중국·필리핀 등에서 온 다문화여성 50명을 초청해 부모님께 선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.

LG화학 사회봉사단은 2011년부터 경제적 어려움과 비싼 국제운송비 부담으로 부모에게 선물을 보내지 못하는 다문화 여성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있다.

12월23일에는 1000만원 상당의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 새해 선물을 지원했으며 참석자들은 편지와 사진도 가족들에게 전달했다.

필리핀에서 온 이사벨씨는 “필리핀 태풍 피해로 가족이 큰 피해를 봤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함이 컸는데 조금이나마 가족들에게 선물을 전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”고 밝혔다.

LG화학 관계자는 “타국에 건너와 낮은 한국 문화에 적응해가며 살아가는 다문화여성들이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미안해하는 것이 안타깝다”며 “행사를 계기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고 지역 이웃과 함께라는 생각으로 밝게 생활하길 바란다”고 설명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12/24>